



3/4분기 보험사업, 생명보험 실적 부진 지속

왕양비 연구원

■ 금년 3/4분기 중국 보험산업 수입보험료가 전년동기대비 3.9% 감소하는 등 생명보험의 실적 부진이 지속됨.

-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금년 3/4분기 생명보험 수입보험료는 2,082억 위안으로 전년 동기대비 12.9% 감소했으며, 증가율도 전 분기 -9.1%에 비해 3.8%p 하락함.
- 이에 따라 금년 3/4분기 전체 보험산업의 수입보험료가 3,197억 위안으로 나타났으며,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3.9% 감소함.
- 이에 반해, 3/4분기 손해보험 수입보험료는 1,115억 위안으로 전년동기대비 19.0%로 늘어나는 등 2011년 1/4분기 13.9% 증가율 이후 2분기 연속 19.0%대를 유지함.

■ 금년 들어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이는 생명보험 수입보험료 증가율이 9월 2008년 11월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으며, 이는 판매채널 위축과 금리 인상에 따른 보험상품 경쟁력 약화 등에 기인함.

- 금년 1월 19.3%에 달한 생명보험 수입보험료 증가율이 2~3월 10.1%, 4.0%로 두 달 연속 하락한 후 4~6월 4.9%, 8.1%, 9.5%로 상승세를 보였으나, 7월 급격히 감소하여 0.1%를 기록했고 8월과 9월 각각 -1.6%, -2.1%로 마이너스 증가율을 보임.
- 2010년 10월 은행감독관리위원회가 보험회사 파견 설계사의 은행 활동을 불허하고, 각 은행 지점에 대해 3개사 이하의 보험상품만을 판매하도록 규제함에 따라 생명보험의 중요 판매채널인 방카슈랑스가 크게 위축됨.
- 이와 더불어 저준율의 지속적 인상에 따라 자금이 부족한 은행의 경우 예금 흡수를 위해 단기 금융상품의 금리를 지속적으로 인상한 반면, 투자형 보험상품의 수익률은 은행의 정기예금 금리에도 미치지 못함에 따라 생명보험의 경쟁력이 대폭 하락한 실정임.

- 또한, 2004~10년 1/4~3/4분기 중국 보험업 평균 투자수익률이 5.0% 이상을 유지하였는데, 금년의 평균 투자수익률은 금융시장 불안으로 인해 2.7%에 그쳤음.
- 금년 3/4분기 중국 상하이 A주 지수와 상하이 기업채권 지수는 각각 14.1%와 1.3% 하락하였으며, 2004년 이후 처음으로 동반 하락함.
- 이에 따라 보험회사의 투자수익률이 크게 떨어지며, 상위 3개사는 3/4분기 약 400억 위안(약 7조 원), 1/4~3/4 분기 총 600억 위안(11조 원)의 투자 손실을 기록함.

(경제참고보, 신화망, 11/04 등)